

공익법인 중민재단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

Joongmin Foundation



- 2017**
 - 02 • 중민포럼 10차, 혁명에서 집정으로: 코포티즘적 시각에서 본 중국 공산당의 사회합치
 - 03 • ISA writing workshop - 촛불정치와 사회이론
 - 04 • Ulrich Beck 추모세미나 1차
 - 05 • 중민포럼 11차, 유교연구방법(1): 푸코와 하버마스
 - 중민포럼 12차, 유교연구방법(2): 푸코
 - 06 • 유교연구 개막 세미나, 유교연구의 방법론
 - Ulrich Beck 추모세미나 2차
 - 08 • 독일(뮌헨), Jurgen Habermas 대담
 - 09 • 중민포럼 13차, 87년체제와 촛불혁명
 - 11 • 한국연구재단 GRN 연구, Kick-Off 세미나
 - 영국(런던) John Dunn, Anthony Giddens 대담
 - 12 • 중민포럼 14차, 한국과 일본의 중간계급
- 2018**
 - 01 • DJ 책 출간: Asian Tradition and Cosmopolitan Politics
 - 02 • 광주 5.18 증언채취 연구 시작
 - 03 • 중민포럼 15차, 2030 세대가 보는 인권과 정의
 - 04 • 중민포럼 16차, 21세기 실학의 사상적 과제에 대한 일 단상
 - Weber & Rationality 워크숍
 - 05 • John Dunn 교수 초청 전남대 한반도 탈바꿈 국제학술대회
 - John Dunn 교수 초청 서울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세미나
 - 06 • 중민이론 책 출간: 한상진과 중민이론
 - 서울대 386 중민세대 모임
 - 09 • 영국(런던) John Dunn 대담
 - 독일(뮌헨), Jurgen Habermas 대담
 - 10 • 한국연구재단 GRN 연구, 2차년도 세미나
 - 11 • 서울과 북경의 사회합치: 전문가 대화 토론회
- 2019**
 - 01 • 중민포럼 17차,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 서울대 Populism workshop
 - 04 • 옥스포드 대학 Scott Lash 초청 세미나
 - 05 • Zhang Jing 북경대 사회학과장 초청 세미나
 - 중민포럼 18차, 파국적 충격에서 탈바꿈으로: 5.18 경험의 재조명
 - 09 • 중민포럼 19차, 한상진의 학문세계와 한반도 탈바꿈
 - 중민포럼 20차, 한반도 탈바꿈 이론과 실천적 함의
 - 중민포럼 21차, Special Talk over John Dunn's view of Korean Denuclearization
 - 10 • 파스칼과 한상진이 함께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미래 북 콘서트
 - 서강대 콜로키움, Two Puzzles of North Korea
 - 태영호 초청대담, 북한 인민의 자발적 복종과 북한 정치의 미래
 - 한국연구재단 GRN 연구, 3차년도 세미나
- 2020**
 - 02 • 공익재단 (재)중민재단으로 재단명칭 변경
 - 03 • 코로나19, 한국 서베이
 - 05 • 코로나19, 1차 세계조사[28개 도시] 실시
 - 한국연구재단, 코로나19 재난(위험) 관리·대응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09 • 코로나19, 2차 세계조사[16개 도시] 실시
 - 12 • 3대 사회적 대화 사업 시작
- 2021**
 - 02 • 3대 사회적 대화 사업 중 사회포용대화 시작
 - 06 • 중민포럼 22차, 코로나19와 한국정당정치 미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민참여 거버넌스 모델과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 09 • 코로나19, 3차 세계조사[33개 도시] 실시
 - 세대공감 1기 사업 시작
- 2022**
 - 02 • 사회포용대화 서울 남부요양병원과 협약
 - 06 • 사회포용대화 공모 사업
 - 08 • 재단 사무실 서초동으로 이전
 - 09 • 환자와 의사가 함께 하는 이상운동증후군 클리닉 북 콘서트
 - 세대공감 2기 사업 시작
 - 11 • 창립 10주년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중민재단 연혁

- 2011**
 - 12 • 공익법인 (재)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설립
- 2012**
 - 01 •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
 - 03 • 북경 서울 자매결연 20주년 시민의식조사
 - 04 • 쌍용머티리얼 임직원 조사[1차]
 - 06 • 한중일 1차 서베이
 - 독일(뮌헨), Ulrich Beck 대담
 - 독일(뮌헨), Jurgen Habermas 대담
 - 09 • 강상중 동경대 교수 초청, 공개 학술 세미나
 - 10 •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1차 학술발표
- 2013**
 - 03 •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중민의식 조사
 - 04 • 중국(칭화대), 한중 위험사회 심포지엄
 -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약계층 인권실태 사례조사
 - 05 • Stephen Linton (인세반) 박사 초청 세미나
 - 06 • 중민이론의 재조명: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세미나
 - 07 • TRI 국가 리더십 의견 조사
 - 08 • Michel Wieviorka 세계사회학회 회장 초청 세미나
 - 11 • 독일(포츠담), 코스모 기후변화 워크숍
 -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체험과 가족안의 소통 세미나
- 2014**
 - 02 • 한국 민주주의, 사회통합, 경제위기 관리 2006~2013년 자료 비교 학술 토론회
 - 04 • 쌍용머티리얼 임직원 조사[2차] 실시
 - 05 • 독일(뮌헨), Ulrich Beck 대담
 - 07 • 유럽-아시아 연구 네트워크(EARN) 양해각서 체결
 - Ulrich Beck 초청, 2014 기후변화 국제학술대회
 - 08 • Li Qiang 중국사회학회 회장 초청, 서울-베이징 2014 워크숍
 - 12 • 프랑스(파리), 코스모폴리탄 데이터 워크숍
- 2015**
 - 01 • 중민의식 조사 실시
 - 주주-시민의 경제·사회·인권 의식 설문조사 실시
 - 02 •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2차 학술발표
 - 03 • 위험사회 도전과 동아시아 미래 국제학술회의 개최
 - 위험사회를 넘어서(Ulrich Beck 추모대회) 개최
 - 위험사회의 도전과 서울의 미래-사회 합치 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와 정책제언 연구
 - 05 • Ulrich Beck 추모대회(파리) 참여
 - Hoffmann-Lange 교수 초청 세미나
 - 06 • 독일(뮌헨), Jurgen Habermas 대담
 - 09 • 중민이론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안전도시 및 위험합치 시민의식조사 실시
 - 11 • John Keane 교수 초청, 파수꾼 민주주의 세미나
 - 12 • 위험사회의 도전과 서울의 미래-참여적 위험 합치와 파수꾼 민주주의 국제 컨퍼런스
- 2016**
 - 03 •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공개 강의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Honneth 교수 초청 워크숍
 - 중민포럼 1차, 제2군대 전환을 이끌 동아시아 문화자원 탐색
 - 05 • 중민포럼 2차, 광복의 빛, 그 의미의 탐색
 - 중민포럼 3차, 광복 의미의 재고찰
 - 중민포럼 4차, 공감적 합리성의 탐색
 - 06 • 중민포럼 5차, 공감정치와 공적 행복
 - 08 • 중민포럼 6차, 공공자원론의 도전
 - 11 • 중민포럼 7차, 중국의 사회합치-청허실험을 중심으로
 - 중민포럼 8차, 개혁기 중국 사회치리와 사구건설
 - 12 • 중민포럼 9차, 중도의 사회적 실천
 - SNU-AMU-JMF 유교연구 양해각서 체결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재)중민재단
www.joongmin.org

재단은 2호선 서초역에서 7번 출구로 나오셔서 SK주유소를 끼고 골목길로 들어오신 후 두번째 블록의 왼쪽 두번째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 02-875-8474)
 ※ 건물내에는 외부인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

공익법인 <중민재단>을 창립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1980년대 중엽, 중산층과 민중의 공존을 주장했던 중민이론의 뜻을 학문적으로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0년간 중민/주주-직원 공생연구를 필두로 하여 위험사회, 사회협치, 정치발전, 코로나19 등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고 국제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양극대립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더욱 알찬 연구에 기반하여 앞으로 중민의 사회통합적 가치를 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청컨대, 이 리플릿에 간추려진 저희 재단 10년의 발자취를 호의로 살펴보고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편달 해주시고 격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22년 11월
(재)중민재단 이사장 /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진

중민재단 10년 활동 개요

(재)중민재단은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출범 당시 재단의 이름은 ‘(재)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이었다.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전환기에 양극대립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주창되었던 ‘중민이론’의 꿈과 이상을 이어받아, 중산층과 민중(서민)의 공존을 모색하는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10여년에 걸친 연구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양극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중민의 가치를 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 캠페인, 사회적대화 및 출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2월, 재단 정관을 개정하여 상기 목적의 사업을 추가했으며 재단명도 ‘중민재단’으로 간결하게 변경했다. 향후 재단활동은 연구에 기반한 출판지원과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중민재단이 10년 전 창립된 이후 수행한 활동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 1) 중민/주주-직원 공생연구, 2) 울리히 벡과 위험사회연구, 3) 사회협치연구, 4) 정치사회변동연구, 5) 코로나19 연구, 6) 사회적대화사업이 있다.

1

중민 / 주주-직원 공생연구

중민재단이 수행한 첫 사업은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공존을 지향하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잘 부합하는 연구로서 어느 개인 투자자가 쌍용머티리얼 회사 투자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그 회사 근무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환원함으로써 시작했다. 부자가 공익추구나 약자를 돕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적지 않으나 주주/직원 공생을 목적으로 직원을 격려하는 이익 나눔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에 중민재단은 2012년 이 회사 근로자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공평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 연구”라는 주제로 1차 주주/직원공생 세미나를 열었다.

이어 2014년에 2차조사를 하였고 2015년 2월에 “나눔의 실천이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서울 시청 시민홀에서 열었다.

2015년 9월 14일에는 중민이론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양극화 시대의 중민: 육성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하였다.



2

울리히 벡과 위험사회연구

중민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연구 파트너와 협력하여 2012년 위험사회의 실상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를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실시했고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위험사회론>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여러 차례 협력했고, 2014년에는 유럽연합 재정지원을 받은 벡 교수의 <코스모-기후> 연구팀을 초청해 다양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위험사회에 대한 서울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대화하고 TV로 생방송했다.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재난 예방과 극복 방법도 탐색했다. 중민재단은 벡 교수와 함께 10여개국 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유럽/아시아 연구네트워크 Europe-Asia Research Network (EARN)를 만들어 협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협력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2015년 1월 1일 벡 교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에 중민재단은 3월 “위험사회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벡 교수 추모제도 열었다.

추모제는 벡 교수에게 ‘무애거사’라는 호를 준 서울 봉은사 명진스님 주재로 불교식으로 거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대책위원장, 독일대사관 대표, 국내외 학계인사가 참여했고 영혼의 안식을 구하는 해금 연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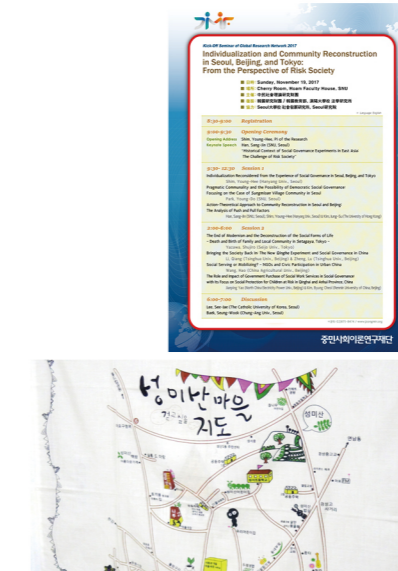


3

사회협치연구

위험사회의 한 특징은 공동체의 해체로 드러난다. 이에 중민재단은 이에 대한 대응이자 처방으로서 사회협치를 중요한 연구 의제로 설정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협력 대신 시민 참여적 협치에 큰 관심을 갖고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 중국, 베이징 시의 사구협치운동을 연구하는 한편,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경험을 연구했다.

중민재단은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에 확산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획득하여 4년간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3개국 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했으며 북경의 칭허 마을, 한국의 성미산 마을, 일본의 세타가야 지역을 방문하였다.



4

정치사회변동연구

중민재단은 한국, 폴란드, 터키, 칠레, 남아공, 독일, 스웨덴 7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치사회변동연구에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2013년,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100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14년 2월 “민주주의, 사회통합, 경제위기 관리: 2006년-2013년 자료 비교”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2015년에는 호주의 존 킨 교수를 초청해서 파수꾼 민주주의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2018년 5월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던 교수를 초청하여 전남대와 공동으로 “한반도 탈바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서울대에서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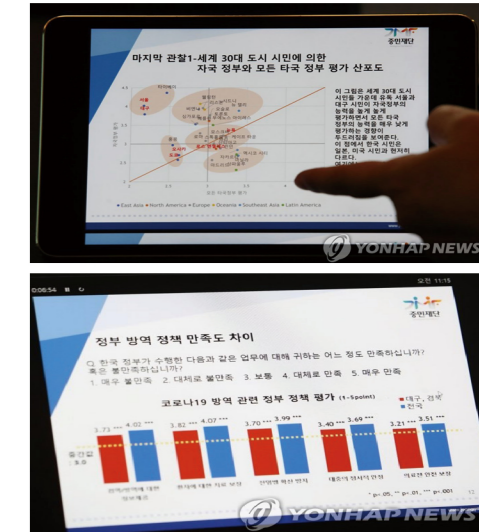
2019년 10월에는 북한주민의 자발적 복종을 주제로 한 <붉은 왕조>를 쓴 프랑스의 역사학자 파스칼 다예즈-뷔르종을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열고 학술행사, 대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5

코로나19 연구

2020년 세계적 팬데믹으로 퍼진 코로나19에 직면하여 중민재단은 세계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여러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2020년 3월에 1차 국민익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코로나19와 시민생활”이라는 주제로 세계 30대 글로벌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세계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 9월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세계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1월에는 제2차 국민익식조사를 했다. 이런 조사의 결과를 2020년 5월에 1차 언론브리핑, 2020년 6월에 2차 언론브리핑으로 공개하였다. 중민재단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세계적 차원의 광범위한 구조적 탈바꿈 현상에 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6

사회적대화사업

코로나19 경험을 거치면서 중민재단은 2022년, 허약해진 공동체를 복구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사회포용대화, 위험파수꾼, 세대공감 사업을 시작했다.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에 있다.

사회포용대화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거치면서 희생과 손실이 가중되었으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업이다. 위험파수꾼은 위험에 직면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청취, 보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세대공감은 개인화의 결과로 취약해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이다.

사회포용대화는 서울 NPO공모지원사업의 틀로 중민재단이 사업을 공고하고 응모자를 선별하여 코로나 환자의 피해 경험, 청년 예술가, 자영업자들의 피해경험을 담았다. 2022년 현재, 세대공감 사업은 전주고등학교와 경북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능성 이상운동증후군>과 같은 모호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결합하여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지원을 모색하는 환자동우회 모임을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대화 프로그램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